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남도장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2년 연속 선정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대표 김경호·사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으로, 남도장터는 국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국비 지원 사업이다.

남도장터는 민간 대형 유통사들이 대거 참여한 경쟁 속에서도 전국 지자체

국비 4억5000만원 확보…지자체 소평물 중 유일 전남 수산물 소비 촉진·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대

소평물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며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남도장터는 올해 10회 이상 ‘대한민국 수산대전’ 기획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대 중성 어종 7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

치·조기·멸치)을 비롯해 전복·홍어·굴·민물장어 등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을 선별해 특별 할인가로 선보인다.

남도장터는 지난해 수산대전 기획전 10회를 운영하며 23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전남 수산업계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는 명절과 계절별 특판 행사에 더해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병행해 소비자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 행사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명절 특별전’은 다음달 2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수산대전 기본 20% 할인에 남도장터 자체 설 명

절 기획전 할인을 더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감 물가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 선정은 남도장터의 운영 역량과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 청정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지역 수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026 남도장터 설 전상품 할인전

1인 20% 할인

쿠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2026.1.2 - 2.18



전남개발공사, 한전KPS와 에너지사업 협약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투자 연구 협력·전문인력 양성·정비습 구축도



전남개발공사와 한전KPS는 26일 나주 한전KPS 창조홀에서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장충모 사장)와 한전 KPS(김홍연 사장)는 26일 나주 한전 KPS 창조홀에서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풍력발전,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풍력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비 Shop 구축 △신재생에

너지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공동참여 등 협력을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첫 발을 내딛던 이후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한전KPS는 전력 발전설비 정비, O&M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왔다. 양 기관은 기술 협력과 함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사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설 앞두고 하나로마트서 특별 할인행사

510억 투입…유류·영농자재도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농심!천심!동심! (農心!天心!同心!)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키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농협 최초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협은 총 51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362억원은 자체 예산, 135억원은 정부 지원, 13억원은 자조금으로 조성됐다.

해당 재원은 설 특판 행사와 물가안정 특별 할인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배·한우 등 설 성수품목과 배추·계란·라면·참기름 등 물가안정 품목을 기간에 따라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한다. NH성평물(농협물)에서도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울러 NH-OIL 주유소에서는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 자체판매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동시에 낮출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설 성수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이번 특별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검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로컬푸드직매장 동광주점에서 합동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 앞장

로컬푸드직매장 동광주점서 식품안전 점검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검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로컬푸드직매장 동광주점에서 합동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하나로마트 내 식품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을 조성

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과 김윤자 농협 광주검사국장이 직접 참여해 설 성수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취급 및 위생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취급·보관 상태 △위생관리 실태 △식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이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설 명절에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검사국은 다음달 13일까지 27개 판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8개월 연속 기준치 웃돌아

1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0으로 지난해보다 0.7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장기 평균보다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101.4를 기록한 이후 7월(109.9), 8월(113.6), 9월(110.3), 10월(111.2), 11월(114.4), 12월(112.7) 등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6으로 지난해보다 2p 상승했으나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9로 3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1)는 전월보다 2p 하락했으며 소비자출전망지수(115)와 물가수준 전망지수(136)는 각각 2p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94)는 2p, 향후경기전망지수(106)는 1p 각각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지수(95)는 2p 하락했으며 임금수준 전망지수(122)는 1p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5)는 6p, 금리전망지수(102)는 3p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자산관리사업 등 강화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영업점 자산관리 전문가(WM)를 대상으로 2026년 ‘WM로드쇼 N.E.X.T.’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WM(Wealth Manager) 로드쇼 N.E.X.T.(New EXpert Team)’은 자산관리와 방카슈랑스,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WM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세미나로, 새로운 전문성을 갖춘 팀이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과 고객 중심 상담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고객의 자산 상황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상담 기법,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마케팅 전략, WM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마케팅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적용도를 높였다.

임철현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협 전남본부-팜스테이협

정기총회서 프로그램 논의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전남팜스테이협 의회는 최근 전남도 농업인지원센터에서 광주전남팜스테이협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내 유류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체험하는 ‘스쿨팜’ 운영을 비롯해 지자체와 협력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가족 단위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팜스테이 마을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농협의 핵심 가치인 ‘농심천심동동’ 확산을 위해 전남 지역 주요 축제에 참여해 팜스테이 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 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재운 광주전남팜스테이협회의장은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시민이 즐겨 찾는 경쟁력 있는 팜스테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